단게 겐조(丹下健三)

- 일본 현대 건축을 세계적 반열로 견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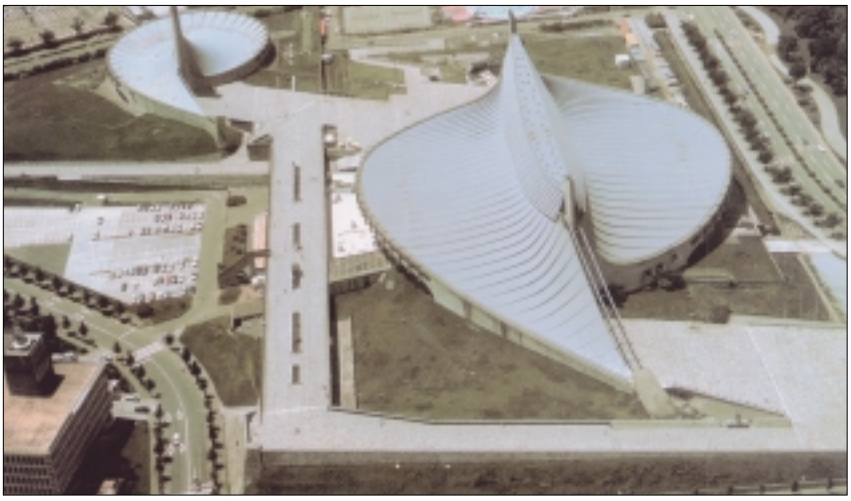
Tokyo city hall complex.

도쿄올림픽과 오사카엑스포에서 단게 겐조의 건축은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동양의 현대 건축이 서양 건축의 모방 정도로 알고 있을 때 세계를 앞서간 단게 겐조의 작품은 세계가 놀란 새로운 동양의 발견이기도 하였다.

1913년 이마바리에서 태어난 단게는 1938년 도쿄대학 건축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르 꼬르뷔제의 제자인 구니오 마에가와에게 사사하였다. 1946년 도쿄대학 건축과 교수로 임명된 이후 계속 대학에 남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로피우스가 하버드에서 TAC를 설립하여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였듯이, URTEC을 설립하여 건축 설계와 도시 설계 모두를 정력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는 일본의 전통 건축과 서구 특히 르 꼬르뷔제의 모더니즘을 융합한 일본 현대 건축의 흐름을 이끌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실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메가스트럭처'라 불리는 도시형 인프라를 내장한 어반 아키텍처인 도시 스케일의 건축을 시도하였다.

그는 교육자로서도 현대 건축의 3세대 대표적 건축가들인 아라타 이소자키, 키쇼 구로가와, 후미히꼬 마키 등을 길러냈다. 그는 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리얼리티를 표현하려고 한 리얼리즘의 작가였다. 일본에서의 그의 작업은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일본 전통 건축의 현대화에 머물지 않고 일본 전통과 현대 문명을 어우른 세계의 건축을 만들고자 한 일본 건축의 기수였다. 그의 디자인 방법론은 기능주의와 구조주의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는 정통적 기능주의를 넘어서 기능의 구조화와 상징화를 동시에 실현했다. 그가 설계한 도쿄 국립체육관은 육체의 장소를 넘어 정신의 장소를 추구한 형이상학적 미학의 건축이다. 그의 도시와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은 건축이 도시의 부분이 아닌 도시의 축도인 것을 의도했다.

그는 일본의 전통 건축을 연구하고 뛰어난 저작을 남겼다. 「가츠라 : 일본 건축에서의 전통과 창조」와 「이세 : 일본 건축의 전형」은 일본 건축의 핵심을 알게 하는 명작이다. 그는 전통을 형태가 아닌 정신으로, 양식이 아닌 원리로 이해했고 전통의 반복이 아닌 창조적 계승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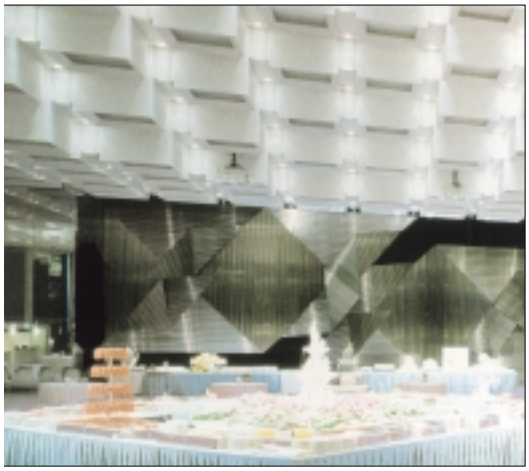


National gymnasium for Tokyo.

1959년과 1960년 사이 MIT에 초빙 교수로 갔을 때 학생들과 함께한 「보스턴 베이 프로젝트」와 1960년 출간된 「도쿄 계획 1960 : 구조 개혁을 향하여」를 통하여 건축과 도시 모두를 포괄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형식을 제안했다.

그는 도시 계획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도시 구조 구성 요소로서의 교통의 다이나미즘과 도시의 다이나미즘을 합치시킨 단게의 「도쿄계획 1960」은 도쿄만 위에 선상으로 확장되는 교통의 기간 구조와 건축군으로 이루어진 선형 도시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간 구조는 여러 레벨의 교통 라인과 서비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건축군도 어반 인프라와 함께 변화한다.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수퍼스트럭처가 메가스트럭처와 그룹폼의 공간 형식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로부터 이끌어진 대담한 발상이었다.

Akasaka prince hotel.



단게는 서구 민주주의의 나라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민주주의 원리를 원용한 도시를 도쿄만에 세우려 했던 것이다.

단게는 일본의 건축가들이 구미 제국에의 문명적 컴플렉스를 벗어나게 한 사람이다. 2차 대전 이후의 일본 현대 건축은 단게 한 사람이 이끌어왔다 할 만큼 큰 역할을 했다. 히로시마 피스센터, 도쿄도청사, 세인트마리 성당, 도쿄 국립 체육관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기라성 같은 젊은 건축가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두 번 지은 도쿄도청사의 경우 두 번 다 현상에 당선되어 두 번 다 설계를 했다. 가히 건축계의 천황이었다.

단게의 영향을 받은 김수근 선생으로 해서 한국도 단게의 영향권 안에 들어선 듯 했다. 김중업 선생이 " 단게는 색맹이 아니고 형맹이다, 그에게 이성은 있으나 감성이 없고 철학은 있으나 미학이 없다"며 그를 폄하하는 바람에 나는 비켜 설 수밖에 없었으나 「도쿄계획 1960」에는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글은 그의 건축만큼 단순 명료하고 분명하다. 그는 많은 것을 욕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매료되게 한 것이다.

그는 일본의 역사를 깊이 이해한 바탕 위에 세계의 흐름을 과감히 받아들여 자기 특유의 것을 만들어낸 일본이 나은 세계적 건축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이루며 새로운 도전의 세계로 나간 점이다. 전후 일본의 기적적 성장을 상징하는 건축과 도시를 세계에 널리 알린 다음에 직접 세계로 나아가 새로운 건축과 도시의 영역을 개척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궁전, 쿠웨이트 국제공항, 나폴리 신도심계획, 나이지리아 신수도도심계획, 국제석유센터 등을 통해 그는 세계의 건축가가 되었다. 역사상 어느 건축가도 그가 이룬 만큼의 세계 건축가적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세계적 성공에 머물지 않고 그는 「정보화 사회의 건축과 도시의 존재 방식을 모색하며」를 발표하였다.

그는 일본 열도의 장래에 대해서 공업화 과정, 정보화 과정, 자연 생태화 과정의 세 단계를 상정하고 공업화 과정을 물질과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보화 과정을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자연 생태화 과정을 자연과 인간 시스템으로 명료히 설파하고 있다. 건축에서 도시 설계로, 그리고 세계로 나아간 반 세기에 걸친 대장정 끝에 돌아온 대가가" 나는 아직 정보화 사회의 건축과 도시의 존재 방식에 대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그것을 탐구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겸허함, 확고한 신념, 끊임없는 정진과 도전이 일본 현대 건축을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이다.

김석철 (건축가, 베네치아대학 · 콜럼비아대학 초빙 교수)